

#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

-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 담론 연구-

송인화\*\*

## 〈차례〉

1. 들어가며
2. 억압적 결혼과 순결한 이혼
3. 열망의 사랑, 차별의 구조
4. 정화(淨化)와 저항의 피흘림, 사랑이데올로기를 넘어서
5. 젠더 시각에서 다시 쓰는 불륜 담론과 여성 주체 세우기

## 〈국문초록〉

본고는 정연희 자전소설인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를 대상으로 ‘불륜’ 문제를 담론화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1960, 70년대 사회적 일탈 행위이자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탄핵받았던 ‘불륜’이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의 담론은 여성의 불륜을 부적절한 정념으로 처벌하거나 가정으로 회귀할 것을 강요하는, 일반적 불륜 담론의 훈육적 계몽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 보다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와 새로운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외도와 무책임한 방탕으로 인해 이혼은 아내의 정당한 선택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혼녀를 가정 파괴의 부정녀로 비난하는 윤리적 처벌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한다.

\* 이 논문은 한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세대 교양학부 부교수

60, 70년대 낭만적 사랑에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과 가부장적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불륜의 사랑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남성은 개인적 소유물로 여성을 인식하고 육체의 순결성만 강박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비극적 파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서 비극성의 원인을 감성에 뮐으로써 정념을 단속하는 보수적 규율 담론과의 외연적 일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격하는 대상을 여성의 육체나 정념이 아닌 억압성을 바로 인식 못하는 맹목성에 뮐으로써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작품은 피흘림을 통해 도덕적 자책감과 훼손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주체적 자아 성취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피흘림의 장치는 기독교적 상징 서사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을 통해 절대자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순응적 회귀보다는 분노와 항의를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지배적 구조의 모순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 작품의 혼외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구조에 내재된 차별성을 공격하고 고난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성 주체의 성장을 재현함으로써 보수적 불륜담론의 혼육성을 꺾어내고 있다.

핵심어: 불륜, 낭만적 사랑, 혼육적 계몽성, 순결, 규율 담론, 피흘림, 여성 주체, 성장 서사

## 1. 들어가며

본고는 1970년과 1975년에 각각 발표된 정연희 자전소설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를 대상으로 ‘불륜’ 문제를 담론화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1960-70년대 최상의 사회 가치로 간주되었던 ‘건전한 가정’을 위해하는 사회적 일탈 행위이자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탄핵받았던 ‘불륜’을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구제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연희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세 편의 전작장편 자전소설을 출간한다. 68년에 『석녀』, 71년에 『고죄(告罪)』, 78년에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가 그것이다. 세 편의 소설은 모두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 그리고 불륜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중 『석녀』를 제외한 두 편은 이혼과 불륜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까지 일으켰던 자신의 불편한 실화를 1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담론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륜과 간통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소문과 기성 담론 속에 왜곡되고 훼손된 자신의 사랑과 연애, 그리고 개인사를 정당하게 복원하려는 의지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즉, 유례없는 문화 통제 장치로 여성의 감성과 연애가 규율되면서 ‘불온한 여성의 음욕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었던 이혼,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다(바)르게 비틀고 재구성하려는 주체의 욕망이 담론을 구조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60, 70년대는 ‘건전성’을 강조하는 풍조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이

1) 당시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정연희는 1973년 10월 11일에 한국조직개발연구소 전무 김웅삼과 함께 간통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웅삼씨의 부인인 김영숙의 고발에 의해 구속된 후 1973년 11월 6일에 첫 공판을 받았다고 일간지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정연희의 회고에 의하면 국사범(國事犯)처럼 72일 동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엄중한 재판을 받았으며 살벌한 정국 속에서 상대방 남자는 간첩죄로 수사가 확대되어 자신은 72일만에 간통 재판 사상 유례 없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남자는 다시 정보부로 이관되어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한다. 이후 정연희는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했고 이후 상황이 급반전되어 거꾸로 고발자인 김영숙과 정보부원이 간통혐의로 피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1973년의 엄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창작과 방송활동, 대학강사 등으로 유명했던 ‘여류인사’ 정연희의 간통죄-간첩죄로 이어지는 불륜담은 문화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지고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는 이러한 간통과 불륜의 와중에 혹은 5년 뒤에 쓰여졌다. (女流作家(여류작가) 鄭然喜(정연희)씨 姦通(간통)혐의 拘俗(구속), 『경향신문』, 1973.10.12./ 女流作家(여류작가) 鄭然喜(정연희)씨 간통사건 첫公判(공판), 『동아일보』, 1973.11.6./鄭然喜(정연희)씨 告訴(고소)했던 디자이너金英淑(김영숙)씨 姦通(간통)혐의 拘束(구속), 『매일경제』, 1974.03.30./정연희, “절망의 나라에서 울부짖었다, 하나님! 하나님”, 『국민일보』, 2006.06.18.)

테올로기 장치가 작동되었던 시기이다. 풍속에 관한 통제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화되면서, 건전가요, 건전 출판물, 우수 영화, 건전가요 합창 대회 같은 관제 문화나 행사 등이 대대적으로 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개되었다.<sup>2)</sup> 특히 여성의 감성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저해하는 위험한 정념으로 단속되었다. 공/사 영역의 엄격한 분류 하에 사적 영역에 배치된 여성의 연애,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에 이르는 사적 영역의 감성이 분류, 차별화, 조직화되면서 규범화된 관제의 영역으로 다스려지게 된 것이다.

여성의 연애와 사랑은 결혼을 전제로만 용인되었고 결혼 후에는 부부간의 애정이나 관계보다는 헌신적 내조와 인내, 그리고 양육의 의무성만이 강조되면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정서는 무시되었다.<sup>3)</sup> 여성의 연애와 사랑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으로만 허용되었을 뿐 결혼 후에는 불필요한 혹은 지나친 감성으로 간주된 것이다. 사랑은 ‘연애지상주의’와 ‘건전한’ 사랑으로 분류되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자는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것으로 부정되었으며 쾌락, 향락, 허영, 사치, 히스테리 등의 수사적 장치를 통해 하위 계열화되었다.<sup>4)</sup>

- 2)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340쪽.
- 3) 6, 70년대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주부 담론을 분석한 다니자키 아즈코에 의하면 결혼 후 한국여성의 역할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서적 돌봄과 남편에 대한 내조에 국한됨으로써 남편과의 성적관계가 내조의 문제로 변질되었다고 보았다. 손승영도 한국사회에서 결혼 전 청년들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열정은 매우 높으나 결혼 후 부부관계와 사랑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결혼 후 성역할의 경직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다니자키 아즈코, 『현대 한국중간층 주부역할 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6, 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2, 52-75쪽/손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2011, 51-81쪽.)
- 4) 6, 70년대 여성의 감성을 규율하는 담론이 정감이나 성에 자체를 억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애를 ①결혼하지 않은 연애-연애지상주의-부도덕한-음란, 사회적 악-히스테리와, ②결혼에 이른 연애-건전한 사랑-윤리적-숭고함-정신적으로 각각 분류함으로써 육체와 감성은 질병에 속한 영역이 된다. 연애에서 핵심적 내용인 정감이 삭제되고 이성-과학-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화된 감성으로서의 ‘건전한 연애’가 옹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애담론은 자유주의이념을 교육

여성의 감성에 대한 이러한 억압적 규율화는 60년대 낭만적사랑에 결정적 좌절과 타격을 가한다. 연애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연애 자체를 즐겨서는 안 되며 연애 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범이 행사되면서 여성의 연애와 사랑은 왜곡되거나 억압되는 것이다. 연애 자체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연애를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연애 경력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sup>5)</sup> 알려진 바와 같이 낭만적 사랑은 자유의 이념을 기반으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문화 산물이다.<sup>6)</sup> 개인의 선택에 의한 연애가 강조되면서 부모에 의한 강제 결혼이 아닌 개인의 사랑에 기반한 연애와 결혼이 성취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고등교육의 확장에 따라 대폭 증가된 60년대 이후 지식인 여성들에게 낭만적 사랑은 주체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사랑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감성 규율 기제에 의해 실제 현실에서 낭만적사랑은 변형된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감성적 교감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퇴폐이자 사회적 악이다’로 억압적으로 치환된 것이다. 연애가 아닌 결혼에 압도적으로 강조점이 찍히면서 6,70년대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는 결혼의 억압성에 갇힌 불구의 이야기가 되었다.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에 흡수되지 않는 연애는 사회를 문란케 하는 음란한 행위로 비판되면서 연애는 위축되고, 낭만적 사랑은 일그러진 판타지로 여성에게 욕망의 좌절로만 체험되었다.<sup>7)</sup>

---

으로 습득한 지식인 여성이 기대했던 낭만적 사랑과는 현격한 간극을 낳는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판타지이자 환각으로만 체험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최경희, 『196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교양화’ 연구-『가정생활』의 연애·결혼담론과 박경리의 <암흑의 사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95-426쪽./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31-160쪽.

5) 손승영, 앞의 책, 70쪽.

6) 기든슨,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 81-119쪽.

더욱 문제적인 것은 낭만적 사랑의 독점적-배타적 성윤리가 여성에게만 강압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기초한 낭만적 사랑은 일부일처제의 독점적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 혼외관계는 낭만적 사랑이테올로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외도를 사회악으로 엄벌하는 것과 달리 남성의 외도는 너그럽게 허용되었다. ‘한 번 치러야 할 홍역’으로 가볍게 처리하거나, ‘나라의 부강을 위해 잠시 머문 휴식’ 혹은 생물학적으로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욕구 등으로 미화하면서 여성의 인내를 외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강요하였다. 나아가 ‘낮에는 현부 밤에는 요부’를 강조하며 남편에게 창녀와 같은 섹슈얼리티까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감성과 성애는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규율되었다. 부부 사이의 관계성에 기초한 정감으로서의 사랑은 억압되고 여성에게는 양육과 내조에 필요한 정도의 정감과 섹슈얼리티만이 차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결국 60년대 이후 지식인 여성들에게 개인 주체의 욕망을 실현할 이상적 사랑으로 희구되었던 낭만적 사랑은 감성 규율의 억압된 담론에 의해 좌절되면서 실체가 없는 환상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정연희 자전소설은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혹은 불량한 감성으로 단속된 ‘불륜’을 소재로 한 불륜담론이지만 윤리적 파탄을 통한 교훈이나 고백을 통한 종교적 회심에 중심이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감성을 규율하는 프레임을 따르고 있지만 서사의 초점은 여성의 감성에 대한 처벌과 응징, 그리고 가정으로 회귀하는 계몽적 교훈을 당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낭만적 사랑에 내재된 환상성을 고발하며 사랑의 구조에 잠재된 성차별적 모순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보여준다. ‘소문’과 윤리의 부

7) 지식인 여성과 낭만적 사랑의 좌절에 대한 젠더적 비판은 6, 70년대 여성소설에 주요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담론과 미국」, 『현대문학의연구』 제3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6, 417-452쪽./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당함에 맞서 여성의 시각에서 불륜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기존 담론의 프레임은 차용하면서도 여성에 의해 다르게 구성되는 불륜이야기의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억압적 결혼과 순결한 이혼

60년대는 ‘가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강력한 가치로 신봉된다. 남편이 외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가정 때문이며,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인내하고 내조해야 할 이유도 가정 때문이라고 강조된다. 가정은 윤리적 명분을 구성하는 최종의 가치이자 불량한 감성을 다스리는 처벌의 결정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정서적 위무를 담당하며 양육과 내조를 통해 주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남편-아내-아이들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통적 대가족을 대체하면서 6, 70년대 가정은 문화와 사회를 통어하는 최고의 가치로 등극하게 된다. 부부 관계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 때문이며 이혼은 그 자체로 불량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에 그려진 안지원과 남성운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는 정상에서 이탈된 비정상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지켜야 할 가정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인 남성운에 있는데, 작품은 남성운의 일상화된 외도와 생계활동을 방기한 무책임한 방탕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성운의 외도는 비밀스러움의 의장도 없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 이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내에게 자신의 외도를 무용담처럼 들려주며 웃어넘길 정도로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성적, 정서적 관계는 이미 깨어진 상태이다. 가정부, 아내의 친구, 동료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남성운의 ‘일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잡한 불륜'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유도 상실하게 한다.

가정이데올로기의 필수조건을 구성하는 낭만적 사랑은 배타적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혼외관계는 연애의 관계성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위반행위로 가정을 위협하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그러나 기성 담론들은 남성의 외도를 '한 번의 바람기'나 '생물학적 차이', 혹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일시적 이탈로 관용하며 여성의 인내만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보수성을 노출한다. 『고죄』는 남편의 외도를 부부관계 파탄의 결정적 사유로 제시함으로써 그 억압성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남성운의 무책임한 방종도 이혼의 또 다른 결정적 사유로 제시된다. 집을 마련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일체의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아내인 안지원에게 달려있다. 그녀는 집필과 방송, 그리고 대학강사로 동분서주 바쁘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편 남편의 술과 노름, 외도의 비용까지 충당하고 있다. 잡지사 원고료를 아내 몰래 찾아서 노름으로 빈번히 탕진하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게으름과 방탕은 만성화되어 있다. 안지원은 결혼생활을 '감옥'에 비유하며 7년간의 결혼은 '이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남편과의 관계는 애정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교감 불능의 화석화된 관계가 된 것이다. 안지원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며 유산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부부관계에서 가정을 지탱할 수 없다는 선택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한 지분을 쓰고 사는 남편은 이미 나에게서 남자의 의미를 거두어 가버린 지 오래다. 내가 내 감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방편이요 대상이랴 그나마 남편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나의 비애는 참혹하게 움츠러들고 그것은 거부와 자기 항거, 그리고는 경멸, 냉담한 무관심의 계단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타고 나기를,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걸근대는 것을 고쳐 줄 도리도 없고 막아 낼 흥미도 기력도 없어서 버린 뒤다.



나는 이따금, 게으르고 더러운 냄새가 끔찍한 수컷을 기르고 있는 악취미의 동물원지기 같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악취 속에서 나의 존재를 재확인하며, 거추장스러워하며, 또 그 걸리적거리는 데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왔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서 내동댕이치고 걷어차 두었던 듯한 나의 욕구는 갑자기 그 모습을 달리하고 나타났다. 밝고 찬란한 해를 받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따뜻한 바람과 풍성한 토양(土壤) 위로 눈 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는 않지만 도덕(道德)이라든가 윤리(倫理)라든가 자의식(自意識), 그밖에 잡다한 이유 때문에 좌절의 장애 밑에 깔려 버렸다.<sup>8)</sup>

남편을 ‘더러운 냄새가 끔찍한 수컷’으로, 자신을 그것을 기르는 ‘동물원지기’에 비유하고 있다. 또 ‘남자의 의미는 거두어 가버린 지 오래다’고 말한다.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감정도 결속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겨우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때문이지만 그마저도 ‘잡다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도 이미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도덕적 의무감에서 강제적으로 지탱되는 무의미한 부부관계인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을 ‘좌절의 장애 밑에 깔려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혼의 정당함과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남성운은 아내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인물로 제시됨으로써 보수적 담론에서 구조화된 남편-아내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여성-하위주체로서의 열위적 위치에서가 아닌, 주체적 시각에서 이혼과 불륜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의 행위에서 이혼의 현실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 외에 작품은 ‘순결’, ‘자유’에 대한 재정의의 통해 이혼과 새로운 만남에 따른 비난과 처벌로부터 안지원을 구제한다. 여성의 성과 감성을 단속하는 도구 개념인 ‘순결’과 ‘자유’의 의미를 안지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기성

8) 정연희, 『고죄』, 중앙출판공사, 1971, 171쪽.

윤리의 당위성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안지원은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맺은 부부관계를 ‘순결의 훼손’이라 인식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또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후 만난 장혁진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육체적 관계를 자신의 첫 순결이라고 고백한다. 순결성이 외부 시선에서 당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즉, 결혼할 혹은 결혼한 남성을 위해 보존되거나 지켜져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값에 대한 존중’이 순결에 대한 이유라고 말함으로써 주체적인 자기규율의 논리로 재구축되고 있다. 불륜을 질책하는 어머니에게 결혼한 여자의 순결이란 있을 수 없는 불통의 언어이자 불손한 망언이지만 안지원은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과의 육체관계에서만 순결이 문제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순결성의 훼손, 부정(不貞)한 여인이라는 윤리적 비판과 질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0년대 여성의 육체를 훈육하는 순결이데올로기의 윤리적 억압성이 해체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결정의 논리가 주요하게 부상하게 된다.

‘자유’의 의미 역시 새롭게 규정되는데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재구축된다. 결혼 후 여성의 위치를 남편의 소유물로만 인정하는 문화적 담론의 억압성을 도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부정(不貞)이 획득한, 이 박해받는 자유(自由)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는 백 번도 더 부정한 여자가 되렵니다. 나는..., 부정한 여잡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구요. 하루 하루 견디고 있는 나 자신이 기특합니다. 박변...,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필연이라고 생각된다면 하지시요. 나는 이제 어떠한 일도 피하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날보고 남성운씨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몰이해, 그 무서운 몰이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나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탈출이

있던가를. 어떤 피홀림, 어떤 자기극복, 어떤 절망이었던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결코 돌아가지 않겠어요.」<sup>9)</sup>

60년대 여성의 ‘자유’가 허영, 방탕, 퇴폐와의 연관 속에서 억압적으로 구성되었고 문란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볼 수 있다.<sup>10)</sup> 문란함을 부추기는 불건전한 ‘잉여’라기보다는 부당한 구속에 대한 독립이자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쟁취해야 할 자아의 자율적 권리로 제시되고 있다. ‘자유를 위해서는 백 번도 더 부정(不貞)한 여자가 되렵니다’라는 절규를 통해 순결이데올로기를 훼손하고 주체적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도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을 심문하고 단속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자유’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지원에게 이혼은 자유가 되고 정당한 자기 권리의 획득으로 구체된다. 이혼한 여성에게 향하는 불온한 시선을 정면에서 반박하며 자신의 이혼과 불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은 가정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여성이 가정 밖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호자 없이 거리로 나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온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혼한 여성은 곧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비난되었다. 『고죄』는 ‘자유’와 ‘순결’의 의미를 재규정함으로써 기성 담론의 억압성을 파열하며 주체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담론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

이혼과 불륜에 대한 성차별적 단속과 처벌에 대한 항의는 안지원을 통

9) 정연희, 앞의 책, 109쪽.

10) 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12-140쪽.. ‘자유’를 물질주의적 타락, 퇴폐, 허영의 의미로 여성을 단속하는 억압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정비석의 <자유부인>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9호, 2003, pp.259-294./김지혜, 『부인의 일탈적 욕망과 단죄의 의미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승옥의 <강변부인>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01-128쪽 참조.

해 직언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후 장혁진과의 만남이 문제가 되자 남편인 남성운에게 돌아갈 것을 강권하는 박변호사에게 안지원은 법과 윤리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요, 소위 정신이 개입되지 않은, 거의 일상적(日常的)으로 되풀이 되는 남성의 난잡성은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의 구설에도 오르지 않으면서, 고통과 비애와 운명적인 슬픔을 함께한 남녀관계는 간통으로 불리며 때 도(罵倒)되고, 몇 갑절의 수치 속에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군요.」<sup>11)</sup>

「어째서 나날이 썩어지고 무너져가는 양심(良心)이나 행동은 법의 대상이 안 됩니까. 법률이라는 부부관계 아래서 남편의 어떠한 무책임, 불륜, 패덕은 묵인되고..... 가만 버려두어도 스스로 양심의 형벌을 짊어지는 고행의 남녀 관계는 반드시 간통이라는 족쇄에 묶여야 합니다.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옆에서들 그렇게 야단들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혼자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될 그 큰 고통 때문에도, 제삼자가 알기만 하면 충분히 통쾌해질 이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sup>12)</sup>

남성의 외도는 묵인되면서 여성의 정조만이 ‘간통’이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차별성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남편의 불륜, 패덕은 ‘구설에도 오르지 않으면서’ 여성의 외도만이 처벌되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여성을 규율하는 윤리나 도덕이 훈육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차별성 때문이다. 여성을 규율하는 최고의 처벌인 ‘화냥년’이라는 비난이 다양한 소문의 통로를 통해 안지원에게 쏟아지지만 그녀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차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대한 자기 내부로부터의 (재)구축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욕망에 대한 정직한

11) 정연희, 앞의 책, 105쪽.

12) 정연희, 위의 책, 110쪽.

승인, 그리고 결핍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적 갈망이 억압적 윤리의 정당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 3. 열망의 사랑, 차별의 구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의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의 구조 자체에 있는 차별성으로 인해 그것은 거듭 좌절된다.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와 개인의식을 자양으로 산출된 낭만적 사랑은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따라서 60년대 낭만적 사랑을 희구하는 여성은 개인 주체의 관계성에 기초한 사랑을 기대한다. 하지만 당대 사랑에는 남녀의 위계적 관계성이 구조화되어 있었고 가부장적 차별성이 엄존했다. 60년대 낭만적 사랑은 전통적 윤리와 제도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었고 불평등한 사랑의 구조 안에서 연애의 대상이 바뀐다 해도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채 또 다른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렵사리 남편과 이혼을 한 안지원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불륜을 저지른 간통녀’로 모멸적 지탄을 받지만 어떤 고난과 처벌도 무릅쓰고자 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핍되었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보다 훨씬 크고 강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사랑은 ‘생명’, ‘빛’, ‘구원’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고 간절한데, 윤리나 제도를 넘어서 절대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하나의 허기진 상태’여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긴장 돼 있’었고,(정연희, 『고죄』 238) 장혁진은 ‘나의 여성(女性)을 눈뜨게 한 최초의 남자’(240)이자 ‘인간의 육체가 지니는 순수한 의미에 눈을 뜨게’(320) 한 사람인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사랑이 열정적 욕망의 기호가 되어 대상에게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이 있는 교수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지원이 장혁진과의 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에의 열망’ 때문이다.

장혁진과의 관계에 도덕적 갈등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도덕은 ‘그럴듯한 의관(衣冠)일 뿐’이며 ‘위선과 가식과 끔찍한 협박과 강요로 가득 차’(243) 있는 것으로 안지원의 내면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안지원과 장혁진의 사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혁진의 자기중심적 이기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가부장적의식에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장혁진은 안지원을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아무 때나 전화해서 가겠다고 하고는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은 물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서 지원이 집에 없을 때는 집요하게 지원의 행방을 심문하고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기도 한다. 또 지원에게 그녀의 아파트 대신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강요한 후 자신이 소유한 열쇠로 아무 때나 수시로 방문하여 지원의 삶을 더욱 세밀하게 구속한다. 안지원의 행위와 공간, 시간을 자기의 계획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것이다. 이로써 평등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려는 안지원의 욕망은 좌절되고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하위 배치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장혁진이 안지원의 성을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연히 읽게 된 안지원의 일기에서 지원이 동생의 친구와 몇 번 만났다는 사실을 꼬투리 삼아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붙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처벌이라며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고 피가 흐르도록 구타한다. 이혼의 절차로 남편을 만난 것도, 은사와의 만남까지도 ‘화냥기’로 비난하며 부정한 행위를 고백하라는 심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노이로제적 강박증과, 인격적 대상이 아닌 육체만으로 판별하려는 가부장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혼외관계의 애인이면서도 그는 오히려 남성운보다 더욱 고압적이고 끈질기게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하고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처벌하는데 지원을 성적 욕구를 해소할 독점적 대상으로만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성운이 둘의 관계를 알고 간통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자신은 안지원의 유혹에 잠시 끌려간 것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원의 분방한 남성 편력과 성적 욕구 때문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결국 여

성의 성에 대한 비하와 단속의 기제가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육체로만 인식할 뿐 정신적, 지적인 활동은 ‘허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사회활동에 대한 장혁진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혼 전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안지원은 이혼을 위해 두 채의 집을 마련했고, 장혁진이 제공한 집에 이사한 후에도 생활비는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었다. 때문에 대학의 강의나 창작활동, 그리고 잡지사 원고도 집필하면서 계속 사회활동을 하지만 장혁진은 안지원의 이러한 집 밖의 활동을 ‘정치적’이라는 수사로 훼손하고, ‘허영’이라 몰아붙이며 모든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킨다. 지원에게 그것은 분명 생계를 위한 사회적 노동이자 자아실현의 정당한 지적 활동이지만 장혁진은 그것을 미숙한 여성의 과도한 자기과시로만 폄하하는 것이다.<sup>13)</sup> ‘허영’이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넘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장혁진이 안지원을 ‘허영’으로 매도하는 것은 여성의 지적, 사회적 활동을 ‘필요를 넘어서는 잉여’ 혹은 ‘정신과 지성을 활용할 수 없는 존재의 과도한 활동’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이 아닌 미숙한 존재로 비하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도구적 소유물로만 인식하는 관계성 속에서 평등에 기초한 사랑은 현실화될 수 없는 ‘기대’일 뿐인 것이고, 가부장성에 훼손된 낭만적 사랑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공격된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구조 안에 도사린 성차별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에 밀착된 감성적 자질을 ‘맹목성’이라는 명목으로 비판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성과 육체에 관한 문화 단속 프레임이 차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성 규율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사랑은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열기’, 나아가 병리적

13) 4월 혁명 직후의 담론공간에서 여성들의 결속 방식이나 결속체는 줄곧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로 평가되지 않고 허영심의 발로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권명아, 앞의 책, 258쪽.) 장혁진의 의식은 이러한 보수 담론과 일치하며 작품은 이의 성차별성을 비판하고 있다.

질병으로까지 나타난다. 사랑의 열망에 빠진 안지원은 이전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었던 주체적 인식이나 행동이 소멸되고 장혁진에게 완전히 몰입된 혹은 그에게 부속된 인물로 제시된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며 자신의 논리를 구성했던 자의식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여성이 아닌, 장혁진의 부당한 명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조종되는 또 그의 가혹한 처벌과 학대도 ‘사랑의 표징’으로 여기며 받아내는 몰지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안지원은 자신의 처지를 ‘거지같이’, ‘노예처럼’, ‘동물처럼’이라고 비하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체성이 상실된 자존감의 박탈을 보여준다. 반면 장혁진은 ‘성주’, ‘주인’, ‘상전’, ‘조련사’로 명명됨으로써 결국 사랑 안에서 남성-여성이 주인과 노예의 비정상적 위치로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불균형적 관계는 가학-피학의 병리성까지 노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게 부각된다. 안지원은 장혁진이 외부에 자신을 유혹한 부정한 여자로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문여사, 안여사 등의 지인과 심지어 장혁진의 딸인 혜원으로부터도 듣지만 장혁진의 그러한 실체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의 ‘열기’가 그녀로 하여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힘, 곧 성찰력을 빼앗은 것이다. 장혁진과의 만남은 ‘짐승의 진한 냄새를 피우는 소유욕(所有慾)과 더러운 억측에 시달리는 시달림일 뿐’<sup>14)</sup>이면서도 이미 그에게 ‘중독된’ 의식은 그에 대한 관계를 청산할 의지도 의욕도 상실한 것이다. 빈번히 계속되는 그의 폭행과 매질, 폭언에 대한 그녀의 의식은 이미 정상성을 잃고 있다.

한차례 여한 없이 휘두르고 난 그이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드는 듯 갈 길을 서둘렀다. 나는 고뚜레를 잡힌 말 못하는 한 마리의 소처럼 그가 이끄는 대로 줄레줄레 따라나섰다.

14) 정연희,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대운당, 1978, 300쪽.



원주를 거쳐 단양으로, 단양에서 다시 도담으로 가면서 나는 오직 그가 화를 내지 않는 것만을 기뻐했다. 풀냄새에 절은 촌가(村家)에서, 놀빛에 물 들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저녁상을 받았을 때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 속으로 합장(合掌)을 했다. 그가 웃어주면 나는 하늘에 나는 것 같았다. 그가 순한 말을 건네주면 너무 기쁘다 못해 몸이 좋아붙는 안타까움에 떨었다.<sup>15)</sup>

나는 어느 틈엔가 중독자(中毒者)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를 만나는 동안 그가 찢끔찢끔 덜어주던 정(情)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약을 걸터름질하다가, 치유(治癒)가 어려워진 중독자가 된 것이다. 약이 떨어진 중독자의 금단 증상(禁斷症狀)처럼 나는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허위적거려야 했다.

.....(중략).....

나의 이성(理性)을 난도질 했다.<sup>16)</sup>

사랑의 구조 안에 있는 남성중심적 이기성과 억압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를 사랑에 동반된 열망 곧 감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랑에 잠복된 열기를 현실을 냉엄하게 통찰하지 못하게 막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뜨거운 감성’ vs ‘차가운 이성’으로 대립시키고 맹목성의 원인을 후자의 작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성중심적 이기성을 비판하는 통찰력을 상실케 하고, 노예처럼 폭행과 학대를 당해도 주인의 작은 은총에 감지덕지 하는 메조키즘적 병리성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을, 열망의 사랑 곧 ‘감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작용을 방해하는 감성은 부정해야 할 것으로 비판된다.

낭만적 사랑의 부정성을 감성과 연관하여 억압하고 그것을 병적인 것으로 처벌하는 이러한 논리 프레임은 60년대 보수적 문화담론과 외연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15) 정연희, 위의 책, 245쪽.

16) 정연희, 『고죄』, 앞의 책, 299쪽.

로 다양한 방식으로 풍속 통제가 이루어졌고 부적절한 정념은 폐, 음란, 음욕과 연계되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정적 정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 규율화는 물론 사회 자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즉, 무질서, 혼란, 혼돈의 일으키는 존재로 간주되었다.<sup>17)</sup> 정념이 자기 규율을 상실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인데 작품에서 열정의 사랑이 불리일으키는 감성을 자기 통찰을 상실한 맹목성으로 지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또 그것을 질병과 연관시키는 것도 60년대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담론이 문제로 지목하는 대상에서 담론의 내부 논리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정념이 일으키는 문제를 사회적 질서의 해체, 윤리와 도덕의 침해에 두는 풍속 규율 담론과 달리, 작품은 역으로 사회와 윤리, 도덕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낭만적 사랑에 동반된 로맨스적 감성을 대상을 현혹하는 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작품에서 장혁진은 모순적 양면성을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하나는 감성적 부드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냉엄한 가혹성이다. 전자는 안지원의 생일에 녹용을 구해와 다려주고 구애의 말로 지원을 위무할 때 나타난다. 안지원은 여기에 ‘매료’되는데 결핍된 애정의 보상으로 그녀는 사랑의 로맨스적 감성에 집착한다. 후자는 안지원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심문할 때,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족만을 지키려 할 때, 돈에 대한 타산적 인식함을 보일 때 나타난다. 성차별적 보수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으로 작품은 전자에 매료되어 후자의 문제성을 보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차별적 억압성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초래한 노예와 같은 여성의 의존적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sup>18)</sup> 따라서 이들 작품에는 풍속 규율 담론에 빈번히 나타나는 육체와

17) 권명아,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193쪽.

18) 60년대 작품 활동을 했던 임옥인의 작품에서 정념을 다루는 방식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임옥인은 정념을 근면, 성실, 검약으로 구체화되는 건실함과 대립된 개념으로 제시하고 정념에 사로잡힌 인물은 음욕, 방탕, 퇴폐에 빠진 것으로 그린다.

성에 대한 차별적 억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안지원이 장혁진이나 남편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욕구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직한 욕망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성적 욕구는 “거짓 없는 생명의 불길”(128)로 윤리, 도덕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되어 왔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제시된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서 내동댕이치고 걷어차 두었던 듯한 나의 욕구는 갑자기 그 모습을 달리하고 나타났다. 밝고 찬란한 해를 받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따뜻한 바람과 풍성한 토양(土壤) 위로 눈 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는 않지만 도덕(道德)이라든가 윤리(倫理)라든가 자의식(自意識), 그밖에 잡다한 이유 때문에 좌절의 장애 밑에 깔려 버렸다.<sup>19)</sup>

육체의 욕구를 찬란함, 맑음, 따뜻함, 풍성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윤리와 도덕은 ‘잡다한’이라는 부정적 수사로, 욕구 좌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육체와 성이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훈육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 도덕과 윤리, 그것의 보수적 억압성이라고 말한다. 결국 작품은 감성을 규율하는 논리 프레임을 외연상 따르고 있지만 내부 논리는 보수적 윤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 그것에 구조화된 남성중심적 폭력성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여성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작품의 담론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가 된다.

---

또 그들은 정신병에 걸리는데 자신은 물론 주변의 인물들까지 도덕적, 정신적 파탄에 빠뜨리며 사회적 질서와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작품은 이러한 인물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죽게 함으로써 부정성을 처벌하는데 육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열한 비판과 단속, 정신 우위의 억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훈육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송인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질병의 수사학-임옥인의 『힘의 서정』 연구』, 『비평문학』 제38호, 2010, 267-290쪽 참조.

19) 정연희, 『고죄』, 171쪽.

#### 4. 정화(淨化)와 저항의 피흘림, 사랑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억압적 모순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된다. 장혁진의 실체를 냉엄하게 인식하는 것과 스스로 처절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하나는 장혁진의 실상을 구체적인 현실성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피흘림’이라는 제의적 장치를 통해 자기 구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장혁진의 비열함과 자기중심성, 복잡한 여성편력 등에 대해 들려주어도 그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던 안지원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난다. 우연히 들른 과자점에서 후배로부터 선물 받은 과자 상자를 지원이 잠든 사이 장혁진이 몰래 들고 나가버린 것이다. 지원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라고 먼저 제안을 했을 때는 좋아하는 것이니 혼자 다 먹으라고 아이들은 따로 사주겠다고 낭만적 로맨스의 부드러움을 보여주었던 장혁진이 지원이 잠든 사이 몰래 통째 들고 나가버린 것이다. 작지만 현실적인 이 사건을 통해 안지원은 장혁진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감지한다. 그가 지원에게 주었던 부드러운 감성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달콤한 유혹일 뿐, 그녀가 찾던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동시에 교수로서의 명성에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불륜의 책임을 안지원의 ‘유혹’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비겁함이 전체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그와의 사랑이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관계성에 있지 않았음을 예리하게 알게 되면서 지원은 마음에서 ‘관계의 사별’, ‘피로 물주어 키워왔던 이상(偶像)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 지금까지 기둥이 되어 나를 버텨주던 사람 하나가 죽어 나갔다. 상여(喪輿)를 떠내 보낸 빈 집에 앉아 있음이 이러한 것, 아니 그것은 관계(關係)의 사별(死別)이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죽어버린 뒷자리였다.

우연히 생긴 한 상자의 과자가 내 속에서, 내 생명의 피로 물 주어 키워 왔던 우상(偶像)을 이렇듯 속절없이 죽이다니.

나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까지 슬픔으로 쟁여왔던 사랑의 염원(念願)이, 갑자기 원귀(冤鬼)가 되어 세차게 고개를 치켜든 것이다. 언제나 혼자 웅크려 기다림으로만 일관하던 내 초라한 사랑의 그늘. 나는 그것을 산산이 깨뜨릴 각오로 일어섰다.<sup>20)</sup>

나는 어두운 한밤중, 잠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웅크려 자고 있는 나 자신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혼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죽음의 맛과도 흡사한 불안(不安)을 들며 마시고는 했다. 그것은 죽음의 연기(煙氣)와도 같았다. 결국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었 으면서도, 그 한 집념으로, 나를 이 자리에 가두어 버리는 고치를 지어왔을 뿐이다. 이 어둠이 나는 두려웠다.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캄캄한 고치가 불안 했다.<sup>21)</sup>

상황을 성찰하는 객관적 인식의 힘이 살아나면서 지원은 장혁진을 ‘우상’이라고 말한다. 성주, 주인, 절대자로 추앙했던 그가 기실 환각이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또 ‘관계의 사별’을 통해 주인-노예 관계로 하등 배치되었던 자신의 열위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사랑을 산산이 깨뜨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와의 사랑을 ‘죽음의 연기’로 인식하는 데서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고통마저도 사랑으로 미화했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아가 ‘그의 행위에서 점점 수욕(獸慾)의 진한 냄새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함으로써 장혁진을 동물적 수성을 지닌 한 객체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상이 아닌 인간, 그것도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가진 인간으로

20) 정연희, 앞의 책, 319쪽.

21) 정연희, 위의 책, 323쪽.

그를 직시하는 것이고, 이후 그와의 관계는 현실적 이해관계로 전이된다. 장혁진은 강제로 이주시킨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원을 나가거나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한편, 그동안의 생활 보조금을 모두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이다. 인색한 채권자, 비정한 현실주의자로 장혁진이 재현되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을 사이에 둔 이해관계로 바뀐다. 과대포장되고 부풀려졌던 장혁진과의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안지원은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자신이 기거할 아파트를 장혁진에게 산다. 이를 통해 그녀는 환상적 사랑의 구조, 그리고 의존적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식은 ‘피흘림’이라는 종교적 제의의 형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안지원은 장혁진의 폭행 및 유산으로 인해 크게 세 번 피를 흘린다. 첫 번째는 안지원의 일기를 몰래 훑쳐 본 장혁진이 안지원의 동생 친구인 박정민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일기 속 레스토랑의 이름인 ‘이브’를 여관이라고 우기며 박정민과 육체적 관계를 고백하라는 심문 과정의 구타를 통해, 세 번째는 장혁진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한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한다. 그것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난자당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흘림은 일차적으로 불륜에 대한 도덕적 혹은 종교적 처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안지원은 장혁진의 아내에게 죄의식, 도덕적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데<sup>22)</sup> 피흘림을 통해 그러한 죄를 씻으려 하는 것이다. 곧, 도덕적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정화(淨化)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도덕적 자책감에서 벗어나

22) 안지원은 자신이 죄를 느껴야 할 대상을 장혁진의 아내에 한정한다. 도덕이나 윤리는 성차별적 불평등함 때문에 자신을 벌할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을 향한 죄의식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죄의식보다는 억압적 공포감이 결합된 원망, 분노, 향의가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장혁진의 아내와는 최소한의 갈등도 형성하지 않는데, 이외에도 장혁진의 딸(장혜원), 남성운의 형수 등 대립의 여지가 있는 여성은 물론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해 우호적이다.

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에게 아내 있음을 관념 속에서만 인정하려 했던 나의 비굴성과 어리석음. 그 아내를 부정(否定)하고, 내가 장혁진의 앞에 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자 했던 자기기만(自己欺滿)까지가 한꺼번에 옷을 벗기우고 처참한 물결이 되어 뒹굴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어떻게 하나... 이 노릇을 어떻게 할거나.>

지금까지 가까스로 눈뜨고 있던 영혼이 암흑 속에 파묻히고 전신은 갈갈이 찢기는 아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sup>23)</sup>

장혁진의 아내를 향한 강한 자책감이 ‘갈갈이 찢기는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육체적 가해를 통해 피를 흘림으로써 죄와 잘못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피를 흘려 죄를 구원한 기독교적 구원의 제의적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죄와 구원의 기독교적 상징 서사가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지원의 피흘림은 공포와 분노가 잠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순종성을 넘어선, 종교 서사와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종교적 윤리에 포섭되거나 기성 담론의 구조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동적 순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피흘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양의 형상보다 오히려 공포와 저항, 복수의 섬뜩함을 내재화하고 있다. 죄에 대한 순응적 반성보다 억울함, 분노, 향의가 억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빈번히 그의 다리에 매어 달렸다. 열 번, 스무번, 빈번이 그는 가혹한 발길질로 나의 매어달림을 털어 버렸고 쓰러지는 나를 짓이겼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킁킁해지는 숲 속에서도 내가 흘린 피의 선연한 붉은 빛은 독기를 뿜고 있었다.

23) 정연희,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272쪽.

이번에는 산인가, 지난번에는 강이더니. 이 땅... 강과 산에 골고루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골고루 피로 물들여야만 하는가. 이 피가 무엇에 닿기에. 무엇에 쓰이기에.<sup>24)</sup>

문짜이 부서져라 하고 우악스레 닫히고 복도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갔다. 나는 엎드려진 채 방바닥으로 흥건하게 흐르는 피를 지켜보았다.

<다 빠져라. 말끔히 말끔히 다 빠져 나가라. 한방울의 피도 남지 않고 다 빼어버린 후에 이 몸속에 혼(魂)도 나가게 하라.><sup>25)</sup>

붉은 빛의 독기, 뿜어내는 피에서 강한 분노와 향의가 표현된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고백을 통해 규율 주체의 상징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율의 억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이 왜 피를 흘려야만 하는지를 강력하게 되묻고 있는 것이다. 죄를 훈육하는 규율자의 시선과, 그것의 억압성과 부당성을 공격하는 인간의 시선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면서 분열적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죄로 억압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분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향의와 분노는 작품에 편재되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길으로는 죄를 벌하는 훈육담론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순복할 수 없는 강한 향의가 암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나는 피흘림의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적인 회개나 훈육보다는, 새로운 주체성 확립을 위한 과거와의 결별, 곧 과거의 도덕적 자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정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의 주체 성장 서사를 향한 통과제의적 절차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안지원이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은 주목할 만하다. 장혁진의 환상에서 벗어난 안지원은 ‘창녀가 몸을 파는 기분으로’ 그와 잠자

24) 정연희, 앞의 책, 254-255쪽.

25) 정연희, 위의 책, 286쪽.



리를 같이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나 갈등 없이 냉담할 뿐이다. 섹슈얼리티의 억압성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화냥녀, 부정녀, 간음녀로 지목되며 끊임없이 정조를 심문 받았던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정조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기도 하다. 여성을 육체의 순결로만 판별하려는 억압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안지원은 이러한 마지막 절차를 통해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장혁진과 단호하게 헤어진다. 작품은 이러한 안지원을 ‘고치를 완성 시킨 애벌레’로 비유하는데 고난을 통과하여 성숙해진, 자아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이데올로기의 환상을 넘어 자학적 의존성에서 벗어난 주체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나아가 지원의 향후 삶을 암시하는 마지막 장면도 시사적이다.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는 지원의 새연재소설이 신문 전면에 게재 광고가 난 것으로 맺는다. 일반적인 불륜 담론이 보여주는 여성의 가정 회귀와는 다른 여성의 새로운 출발을 사회진출과 성취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정념에 사로잡힌 여성을 방탕과 음란을 처벌하며, 가정으로의 회귀를 통해 순결한 여성으로 정화시키는, 그리고 결국 가부장적 사회로 회수하는, 사랑이데올로기에 침윤된 훈육 담론의 정식화된 구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불륜 담론의 문법을 가로지르며 그것의 내부를 회파하는 것으로,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는 사랑이데올로기의 환상성과 불륜 담론의 억압성을 넘어 주체로 성장하는 여성 성장 서사를 정립하고 있다.

## 5. 젠더 시각에서 다시 쓰는 불륜 담론과 여성 주체 세우기

6, 70년대 사랑이야기는 소설,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낭만적 사랑이 일상의 삶에 구조화되면서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도처에 흘러넘쳤다. 특히 지식인 여성들에게 낭만적 사랑은 자유와 개인의 이상을

실현시킬 주체 실현의 주요한 방식으로, 매력적인 문화로 적극 흡수되었다. 그러나 평등한 남녀관계에서의 정서적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낭만적 사랑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욕망이었고 좌절과 유예로 체험될 뿐이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 낭만적 사랑은 독점적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흔했던 외도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정조이데올로기의 가부장적 전통이 모순적으로 결합되면서 이중적 억압에 노출된 환상으로만 존재했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과 그것의 좌절 '사이'에서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불륜 담론이 양산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그것은 큰 간극을 보여준다. 남성의 불륜은 한 번은 꺾어야 할 흥역, 공적 일에 시달린 남성들의 잠깐의 쉬, 혹은 생물적 차이 정도로 관용되었던 반면, 여성의 불륜은 허영과 사치, 음욕, 가정 파탄 등의 명목으로 윤리적 단속과 훈육의 대상이 되었다. 다양한 풍속 담론을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는 감시되었고, 윤리적으로 엄혹하게 처벌되었다. 가정이데올로기의 위용 속에서 화냥녀, 간통녀로 명명되며 가정을 깨뜨리는 부정한 여자로, 나아가 사회를 위협하는 질병과 죄로 공격받았다.

정연희의 『고죄』와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가의 불륜을 소재로 한 자전소설로 이혼과 불륜, 그리고 이별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던 여성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남성과의 사랑과 이별에 이르는 갈등과 좌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강사이자 방송작가로,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에게 쏟아진 비난과 질타 속에서 묻고 갈 수도 있을 일들을 두 번에 걸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 곧 여성 불륜담론에 개입된 과도한 오해와 억압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사랑과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의 담론은 여성의 불륜을 부적절한 정념으로 처벌하거나 가정으로 회귀할 것을 강요하는, 일반적 불륜 담론의 훈육적 계몽성을 따

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와 새로운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남편의 외도와 생계활동을 저버린 무책임함과 방탕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적 결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깬 이혼녀라는 윤리적 질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다. 또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과 단속에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순결’과 ‘자유’의 의미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정립한다.

남녀 사이의 평등한 관계성이 기본이 되는 낭만적 사랑은 억압적 윤리가 결합된 내부 모순으로 인해 끊임없이 유예된다. 그러한 점에서 ‘환상’이며 대상이 바뀌어도 모순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정 있는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사랑에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과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을 비판하고, 억압적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감성을 문제화한다. 개인적 소유물로만 여성을 생각하고 육체의 순결성만 강조하는 보수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성을 부적절한 정념으로 지목하는 풍속 규율 담론과의 외연적 일치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고 피학적 병리성을 가져온 주요 원인을 로맨스가 불러일으키는 감성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공격하는 대상을 여성의 육체나 정념 자체가 아닌 억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맹목성에 둬으로써 결과적으로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과 그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로맨스적 감성의 부드러움이 성차별적 억압성을 몰각케 함으로써 여성 자아의 주체성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에 몰입된 여성의 의존적 정체성이 극복해야 할 최종의 과제가 되고 그것은 피흘림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제시된다. 피흘림을 통해 도덕적 자책감과 훼손에서 벗어나 자기 정화를 이루는 것이다. 피흘림으로 씻음을 이루는 이러한 서사는 일차적으로 죄와 구원의 기독교적 상징 서사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을 통해 절대자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순응적 회귀를 거부함으로써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반성적 순응보다 분노와 항의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역으로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현실, 그것을 지배하는 구조의 모순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 불륜 담론의 당위적 귀결인 가정 회귀 대신 사회적 성취와 활동을 불륜 여성의 선택할 정당한 길로 제시함으로써 가정이데올로기에 침윤된 훈육 담론의 문법을 훼손하고 있다. 결국 정연희 자전소설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성을 공격하며 남성중심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주체적 인간으로 성숙하는 여성의 자아 성장 서사로 정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소재의 불륜 담론에서 음욕, 방탕, 퇴폐, 허영으로 공격되었던 부적절한 여성의 육체와 성은 자아의 성숙을 위한 통과제의적 고난에 매개된 필요조건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 참고문헌

-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258쪽; 340쪽.
- 김복순, 『대중소설의 젠더정치학<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9호, 2003, 259~294쪽.
- 김양선, 『195·60년대 여성 문학의 배치』,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27~163쪽.
- 김지미, 『1960~70년대 한국 영화의 여성 주체 재현 방식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지혜, 『부인의 일탈적 욕망과 단죄의 의미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승옥의 <강변부인>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01~128쪽.
-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공과 지식의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6쪽.
-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31~160쪽.

-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담론과 미국』, 『현대문학의연구』 제 3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6, 417~452쪽.
- 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 손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2011, 51~81쪽.
-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송인화, 『1950년대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기독교』,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3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73~503쪽.
- 최경희, 『196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교양화’ 연구- 『가정생활』의 연애, 결혼담론과 박경리의 <암흑의 사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95~426쪽.
- 기든슨,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 81~118쪽.
- 다니자키 아쓰코, 『현대 한국중간층 주부역할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6, 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2, 52~75쪽.
- 로버트 스티버그 외, 『사랑의 심리학』, 최연실 외 번역, 하우, 2001, 1~228쪽.
- 안토이네 베르고트, 『죄의식과 욕망』, 김성민 역, 학지사, 2009, 1~478쪽.

## Abstrat

### 196,70's Emotion - Discipline - Frame and Gender

-A Study on Adultery Discourse of Jung Yeon-Hee's Autobiographical Novel-

Song In-Hwa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way of affair in jung yeon-hee's autobiographical novel, 『confess』 and 『Waiting for the rain snail』. We want to investigate how to reconstruct affairs' story from women's perspective impeached as a Socially deviant behavior.

Stories in these novel did not follow conservative discourse's moral punishing passion as inappropriate or Compelling women to come back home. Instead of that , these novel reconstruct the situation logically Justifiable reason for divorce and new love. That emphasized divorce is a proper decision of wife owing to the husband's unusual affair and irresponsible debauchery. This exempted divorced women from the ethical punishment blaming for the negative destruction of homes.

That was a basically problem of patriarchal and sexist violence structured in 196,70's romantic love. And that repeated in the same manner in love affair. Men recognize women as their personal belongings and compulsive forces the purity of the flesh. As a result they inevitably suffer tragic collapse. That showed external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conservative discourse in a regard that the cause of the tragedy in terms of emotion. Bu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way that It attacks not women's bodies but emotions of blindness could not recognize oppression.

Woman escaped from a moral remorse and damage through bleeding and then reconstructed themselves with social activity as the subject. This can be see a device borrowing a Christian symbol of bloodshed narrative. However It is not the same in that strongly express anger and protest rather than adaptive regression succumb to the will of the Absolute by confession of sin. Bleeding in these novel means protest against the contradictions of the dominant structure. Therefor adultery story in these novel attacks discrimination inherent in the structure of love itself and destructs discriminative moral discours by representing woman-subject's maturity.

Key words : adultery, romantic love, discipline discourse, virginal purity, woman subject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